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6, Vol. 32, No. 3, 359~386.
http://dx.doi.org/10.20406/kjcs.2026.8.32.3.359

OPEN ACCESS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의 역문화 충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효 정[1)] 박 원 주†

본 연구는 만 18세 이전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후 귀국한 성인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dult Cross-Cultural Kids, ACCKs)로 정의하며, 해외 38개국 출신 ACCKs 14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v4.3의 Model 1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하위요인 중 친구 지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상호문화 역량은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 상호문화 역량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기능을 조정하는 핵심 자원임을 보여주며, 특히 친구 지지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상호문화 역량, 심리적 안녕감

---

* 이 연구는 2025년도 김효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64, E-mail: parkwj@hyc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오늘날 K-컬처의 세계적 부상으로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서 성장한 후 한국으로 귀환하는 이들의 흐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4)에 따르면 2023년 재외동포(F-4) 입국자 수는 57,03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28,587명) 대비 약 2배 급증하였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기에 타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하고 성인기를 맞이한 비율이 상당하며, 글로벌 감수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국가적 인적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에 장기간 타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성인기에 본국으로 귀국한 개인들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dult Cross-Cultural Kids, 이하 ACCKs)'이라 하며(Gullahorn & Gullahorn, 1963; Storti, 2001),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기에 최소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문화적 사회화를 경험한 후 성인기에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한국인으로 인식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질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닌 '숨겨진 이민자(hidden immigrant)'로서, 귀국 후 문화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이라는 심리사회적 역설에 직면한다(임선민, 연규진, 2020).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모국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핵심적인 스트레스는 예기치 못한 '역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이다. 이는 익숙하다고 여겼던 사회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모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심각하게 저해한다(Gaw, 2000). 이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아 왔으나(Cobb, 1976),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족 지지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친구 지지는 독립적 사회망 재형성의 토대이자 귀국 직후 단절된 기존 지지망을 대체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Neto & Neto,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매개적 역할을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적응 양상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 내적 역량인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인 상호문화 역량은 역문화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조절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Leung et al., 2014).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및 총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가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PROCESS Macro 모형 15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적응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실증적 상담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개념 및 귀국 후 심리사회적 적응 특성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타문화권에서 장기간 생활한 후 성인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한 개인들을 지칭한다(Gullahorn & Gullahorn, 1963; Storti,

2001). 이는 부모의 직업적 사유로 외국에서 성장한 제3문화 아이들(TCKs)을 포함하여, 선교사 자녀(MKs), 외교관 · 군무원 자녀, 조기유학생 등 성장기 중 하나 이상의 문화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모든 하위 유형을 포괄하는 교차문화 아이들(CCKs) 개념에서 확장된 것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Cottrell, 2011; 이수경, 2021). 교차문화 아이들(CCKs)은 제3문화 아이들(TCKs) 개념의 범주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확장 개념으로, 특정한 이동 배경이나 부모의 직업에 제한되지 않고 발달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문화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한 개인을 포괄한다(Van Reken & Bethel, 2005; 이수경, 2021). 특히 Van Reken은 TCK를 CCK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이수경(2021)은 이를 국내 연구 맥락에서 정리 ·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흐름에 근거하여 해당 개념을 성인기에 확장한 용어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교차문화 개인(Cross-Cultural Individuals, CCI)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나(Nam et al., 2018), 교차문화 경험은 발달기 형성 과정에서 그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이수경, 2021), 발달기 경험을 전제로 하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개념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은 다문화적 배경을 통해 높은 문화 감수성과 언어 유창성, 심리적 유연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잠재적 인적 자본(career capital)으로 평가받으며(Caselius & Suutari, 2023; Evans & Bardhan, 2023; 김혜정, 2021), 단일문화권 성장 집단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애착과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독특한 심리적 적응 양상을 보인다(Doherty et al., 202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귀국 이후 본국 사회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형적으로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나 내면적으로는 타문화에서 형성된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외적 동질성과 내적 이질성 간의 괴리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결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신하은, 2022). 이러한 특성은 이들을 '숨겨진 이민자(hidden immigrants)'로 규정하게 하며,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집단주의 성향과 일관된 문화적 기대는 이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Martin,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문화적 무소속감(cultural homelessness)은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직결되며, 이 과정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나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부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되었다(Tarique & Weisbord, 2013; 이수경, 2017; 장예은 등, 2019). 결국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단순한 귀국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관계망을 능동적으로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재문화적응자(re-acculturator)'로서의 특수성을 지닌다(LaBass, 2015; Szkudlarek, 2010).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외부적 지지 체계와 개인적 역량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문화 충격이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문화 충격은 외국 체류 후 본국으로 귀환한 개인이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서적·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반응으로(Gaw, 2000; Szkudlarek, 2010), 단순한 환경 변화를 넘어 형성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재조정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의미한다(Storti, 2001).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문화충격' 또는 '재문화충격'이라는 용어로 병행하여 사용해 왔으며(이승민, 양은주, 2015; 이노미, 2017), 이는 번역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역문화충격'은 귀국 후 재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사회문화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eiter와 Waddell(1989)의 Reentry Shock Scale 역시 동일한 개념적 맥락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개념적 및 측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문화 충격'으로 일관되게 기술하였다. Gullahorn과 Gullahorn(1963)은 이를 W-커브 모델(W-curve model)로 설명하며, 해외 체류 중의 적응 과정과 귀국 후의 재적응 과정이 연속적인 심리적 굴곡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귀국자들은 익숙한 사회로의 수월한 복귀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된 자신과 사회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며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Jin, 2021). 특히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외형적 동질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내면화된 문화적 가치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Pollock & Van Reken, 2009; Sussman, 2000; Huff, 2001).

이러한 역문화 충격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문화 충격 수준이 높을수록 주변인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증대되고 지지체계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이승민, 양은주, 2015; Fanari et al., 2021). 특히 귀국 디아스포라 및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심각한 역문화 충격이 사회적 단절감과 소외감을 증폭시키며, 친구 및 동료로부터의 지각된 지지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킴을 실증하였다(Jin, 2021; Proyrungroj, 2023).

또한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귀국 이후의 정서적 불안정과 자기효능감 저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약화시켜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Gaw, 2000; Szkudlarek, 2010).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고립감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며(Storti, 2001; Huff, 2001),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와 맞물려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Fanari et al., 2021). 종합하면, 역문화 충격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재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인식을 저해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결정적 변수로 기능하므로, 이들 간의 구조적 경로를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하위요인별 매개적 역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Cobb, 1976; Lakey & Cohen, 2000), 객관적 지원의 양보다

심리적 안녕감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다(Sarason et al., 1983; Cohen & Wills, 1985). Zimet 등(1988)은 이를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지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모델(MSPSS)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지 제공자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기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채영, 2023; 정재희, 2022).

전통적으로 가족 지지는 심리적 안정의 정서적 기반이 되지만(Sarason et al., 1991),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는 해외 체류와 귀국 과정에서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및 문화적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항상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Fanari et al., 2021; 신하은, 2022). 반면, 친구 지지는 성인기에 독립적 사회망 재형성과 소속감 획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이다(Doherty et al., 2023). 특히 귀국 직후 기존 관계가 단절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친구 지지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Jacobsson, 2023; 김채은 등, 2025).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또한 삶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나, 귀국 초기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즉각적인 지지 체계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Fanari et al., 2021; Hofhuis et al., 2019).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은 삶의 만족도나 정신건강 지표에 각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Bi et al., 2021; Petersen et al., 2023), 이를 단일 지표로 통합할 경우 특정 관계 유형의 고유한 효과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최정은, 2015; 홍구표, 전혜성, 2017). 특히 귀국 유학생 및 대학생 집단에서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핵심 변수로 보고된 점은(김혜정 등, 2015; 이승민, 양은주, 2015),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재문화적응 과정에서 친구 지지의 매개적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총점과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하위요인 간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ACCKs에서의 의미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아실현과 심리적 기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yff, 1989). 이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가 결여된 상태를 넘어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Ryff (1989)는 이를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인간관계, 자기수용의 6개 차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높은 안녕감은 정신병리적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대인관계의 질과 직업적 성취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Abe, 2018; Kim & Park, 2023). 특히 문화적 이동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LaBass, 2015; Martin, 2017).

타문화권에서 성장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귀국 후 익숙함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 간의 복합적인 괴리에 직면하며, 정체성 혼란과 소속감 상실이라는 위기 요인을 마주하기 때

문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Tarique & Weisbord,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TCK 출신 성인의 안녕감은 사회적 지지 및 정체성 통합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안녕감이 낮을 경우 보유한 인적 자본(career capital)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Caselius & Suutari, 2023; Doherty et al., 2023).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의 배경적 자원과 실제 삶의 기능성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 매개 자원임을 시사한다.

특히 역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재적응의 성패를 가늠하는 지표이자,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내적 보호막이 된다(Storti, 2001; Szkudlarek, 2010). 외형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이질감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안녕감의 저하는 장기적인 사회적 소외와 정체성 위기로 이어져 귀국 이후의 전반적인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nari et al., 2021; Jacobsson,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핵심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심리적·사회적 자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상호문화 역량의 개념과 조절 기능

상호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각 맥락에 적합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yram, 2014; Huber, 2012).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타인의 관점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태도, 인지적 유연성,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자기조절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Bennett & Bennett, 2004; Leung et al., 2014; Arasaratnam, 2016). 특히 Arasaratnam (2016)은 공감과 개방성, 모호성 수용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이러한 심리적 자산이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역설하였다.

상호문화 역량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통해 발달하는 동적인 능력으로 규정된다(Byram et al., 2014; UNESCO, 2013). Deardorff(2006)는 이를 자기 성찰과 타문화 수용성을 포함하는 고차원적 심리 기능으로 설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병준 등(2017)이 갈등관리, 존중, 의사소통, 성찰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그 실증적 측정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노미(2017)는 이러한 역량이 귀국자의 심리적 거리감과 정체성 혼란을 완충하고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한 후 본국으로 귀환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맥락에서 특히 유효하다. 외형적 기대와 내면적 가치관의 괴리로 소외를 경험하기 쉬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상호문화 역량은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하도록 돕는 결정적 심리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Pollock & Van Reken, 2009; Evans & Bardhan, 2023). 나아가 상호문화 역량은 외부 스트레스와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어 왔다(Torres & Rollock, 2004). 고지원(2020) 역시 상호문화 역량이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조절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앞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겪는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나, 그 영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인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문화 역량은 이러한 지지 체계의 효과를 조절함으로써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역문화 충격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및 총점)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상호문화 역량이 조절할 것이다. 즉, 상호문화 역량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조절된 매개효과).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단기 체류가 아닌 문화적 사회화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해외 거주 경험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만 18세 이전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연수나 관광 등 일시적인 해외 경험만을 가진 경우와 성인 이후 처음 해외 체류를 경험한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각국 대사관, 외국인 학교 동문회 등 공식 기관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였다.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이중언어 설문지를 제공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1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기준(f^2 = .15, α = .05, 1-β = .95) 최소 요구치인 89명을 상회하므로, 가설 검증을 위한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

역문화 충격 척도

역문화 충격은 Seiter와 Waddell(1989)이 개발한 Reentry Shock Scale을 안은지(2020)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귀국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사회문화적 충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귀국 이후의 적응 어려움, 소외감, 문화적 불일치 경험 등을 묻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정 문화권의 사회·문화적 특수 상황에 제한된 내용보다는, 귀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불일치와 정체성 혼란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역문화 충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안은지(2020)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는 .83,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도구로, 관계 유형에 따라 지지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본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 하위요인(각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 하위요인별로는 가족 지지 .92, 친구 지지 .89, 의미 있는 타인 지지 .90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을 김명소 등(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심리적 안녕감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다차원적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외(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1에서 .87의 범위로 나타났다.

상호문화 역량 척도

상호문화 역량은 이병준 등(2017)이 개발한 상호문화 역량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갈등관리, 존중, 의사소통, 성찰 등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해당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문화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병준 외(2017)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0 이상,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PROCESS Macro v4.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배경 변인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에 따라 이후 주요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변인 간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총점 및 세 가지 하위요인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Model 1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모든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거쳐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역문화 충격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호문화 역량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Model 15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익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는 사전에 연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안내한 후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위험 수준이 매우 낮은 연구에 해당하는 익명 설문조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별도 승인 없이 수행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14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성별은 여성 71.6%, 남성 28.4%였으며, 평균 연령은 31.39세(SD= 7.03)로 30대(43.2%)가 가장 많았다. 혼인 여부는 미혼(68.2%), 학력은 대졸 이상(63.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외 출국 시 평균 연령은 9.80세(SD= 5.25), 귀국 시 평균 연령은 20.35세(SD= 6.48)였으며, 귀국 후 체류 기간은 10~20년 미만(31.8%)이 가장 많았다. 참여자들의 해외 거주 국가(표 2 참조)는 북아메리카(34.8%), 아시아(33.3%), 유럽(21.7%), 오세아니아(8.2%) 등 총 38개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여 본 표본이 다양한 문화권의 경험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해외 체류 및 국내 복귀 후 거주 기간, 연령 등의 범위가 넓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내 이질성을 검토하고자, 해당 변인들을 공변량으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성	42(28.4)	출국 사유	부모님의 직업	69(46.6)
	여성	106(71.6)		부모님의 유학	10(6.8)
연령 M: 31.39 SD: 7.03	만18-19세	2(1.4)		유학	48(32.4)
	20대(만)	60(40.5)		이민	18(12.2)
	30대(만)	64(43.2)		기타	3(2.0)
	40대(만) 이상	22(14.9)	거주기간	2-5년	38(25.7)
혼인여부	미혼	101(68.2)		6-10년	50(33.8)
	기혼	44(29.7)		11-15년	35(23.6)
	이혼	1(.7)		16-20년	14(9.5)
	동거	2(1.4)		21-32년	11(7.4)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16.9)	귀국 당시 연령 M: 20.35 SD: 6.48	만5-10세	12(8.1)
	대학 졸업	94(63.5)		만11-19세	57(38.5)
	석사학위	27(18.2)		만20-29세	73(49.3)
	박사학위	2(1.4)		만30-39세	5(3.4)
국적	대한민국	130(87.8)		만40-45세	1(.7)
	복수국적	4(2.7)	귀국 후 기간	1년 미만	4(2.7)
	타국적	14(9.5)		1-3년	14(9.5)
출국 당시 연령 M: 9.80 SD: 5.25	만0-5세	32(21.6)		3-5년	16(10.8)
	만6-10세	44(29.7)		5-7년	20(13.5)
	만11-14세	38(25.7)		7-10년	30(20.3)
	만15-17세	34(23.0)		10-20년	47(31.8)
				20년 이상	17(11.5)

로 설정하여 분석 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주요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대상자의 배경 변인이 주요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왜곡을 일으키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실질적 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총점 및 하위요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상호문화 역량, 심리적 안녕감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 그리고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해외 거주 국가 복수 응답 결과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중복응답에 대한 백분율(%)
북아메리카 (34.80%)	미국	58(23.9)	39.2
	캐나다	18(7.4)	12.2
아시아 (33.30%)	중국	31(12.8)	20.9
	필리핀	11(4.5)	7.4
	베트남	9(3.7)	6.1
	일본	7(2.9)	4.7
	싱가포르	5(2.1)	3.4
	태국	4(1.6)	2.7
	말레이시아	3(1.2)	2.0
	인도	3(1.2)	2.0
	인도네시아	2(.8)	1.4
	UAE[1]	2(.8)	1.4
	방글라데시	1(.4)	.7
	아프가니스탄	1(.4)	.7
	요르단	1(.4)	.7
	우즈베키스탄	1(.4)	.7
	캄보디아	1(.4)	.7
	키르기스스탄	1(.4)	.7
유럽 (21.70%)	프랑스	31(12.8)	20.9
	독일	7(2.9)	4.7
	영국	7(2.9)	4.7
	그리스	6(2.5)	4.1
	네덜란드	2(.8)	1.4
	벨기에	2(.8)	1.4
	오스트리아	2(.8)	1.4
	몰타	1(.4)	.7
	스위스	1(.4)	.7
	아일랜드	1(.4)	.7
	체코	1(.4)	.7
	폴란드	1(.4)	.7
오세아니아 (8.20%)	호주	10(4.1)	6.8
	뉴질랜드	6(2.5)	4.1
	피지	2(.8)	1.4
남아메리카 (1.00%)	멕시코	1(.4)	.7
	파라과이	1(.4)	.7
아프리카 (1.00%)	남아공[2]	2(.8)	1.4

상관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r = -.4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r = -.23, p < .01), 친구 지지(r = -.41, p < .01), 의미 있는 타인 지지(r = -.34, p < .01)와도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역문화 충격은 심리적 안녕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1). 반면, 역문화 충격과 상호문화 역량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06, p > .0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49, p < .01),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가족 지지(r = .31, p < .01), 친구 지지(r = .38, p < .01), 의미 있는 타인 지지(r = .46, p < .01)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호문화 역량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r = .22, p < .01) 및 의미 있는 타인 지지(r = .26, p < .01), 심리적 안녕감(r = .26, p < .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가족 지지(r = .20, p > .05)와 친구 지지(r = .07, p > .05)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각 매개변수는 독립적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

1) United Arab Emirates(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약어
2) Republic of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약어

표 3.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역문화 충격	1						
2. 지각된 사회적 지지	-.41**	1					
3. 가족 지지	-.23**	.80**	1				
4. 친구 지지	-.41**	.73**	.26**	1			
5. 의미 있는 타인 지지	-.34**	.85**	.59**	.49**	1		
6. 상호문화 역량	.06	.22**	.20*	.07	.26**	1	
7. 심리적 안녕감	-.34**	.49**	.31**	.38**	.46**	.26**	1
M	3.98	3.83	4.19	2.89	4.41	4.28	3.47
SD	.95	.66	1.01	.76	.74	.37	.53
왜도	.015	-.944	-1.409	-.841	-1.568	-.248	-.404
첨도	-.224	.699	1.296	.195	2.673	-.054	-.450

*p<.05, **p<.01

표 4.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 회귀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β	t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역문화 충격	→	가족 지지	-.979	.342	-.230	-2.859**	-1.656	-.302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61	.044	-.286	-3.681***	-.248	-.075
가족 지지	→		.033	.010	.245	3.155**	.012	.053
역문화 충격	→	친구 지지	-1.324	.242	-.412	-5.466***	-1.802	-.845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27	.047	-.224	-2.721**	-.219	-.035
친구 지지	→		.050	.014	.286	3.480**	.022	.079
역문화 충격	→	의미 있는 타인 지지	-1.080	.244	-.345	-4.435***	-1.561	-.599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117	.043	-.207	-2.709**	-.203	-.032
의미 있는 타인 지지	→		.070	.014	.391	5.103***	.043	.098
역문화 충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06	.057	-.407	-5.389***	-.418	-.194
역문화 충격	→	심리적 안녕감	-.096	.044	-.170	-2.183*	-.183	-.009
지각된 사회적 지지	→		.318	.059	.422	5.414***	.202	.434

*p<.05, **p<.01, ***p<.001

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본문에서는 효과 크기 비교를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총점을 포함한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는 하나의 통합 회귀표로 정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가족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1), 가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25, p < .01).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총효과는 β = -.34(p < .001)였으며, 가족 지지가 포함된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β = -.29(p < .001)으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친구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역문화 충격은 친구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41, p < .001), 친구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29, p < .001). 친구 지지를 포함한 모형에서 역문화 충격의 직접효과는 β = -.22(p < .01)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의미 있는 타인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역문화 충격은 의미 있는 타인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21, p < .01),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39, p < .001). 해당 모형에서도 역문화 충격의 직접효과는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 역문화 충격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41, p < .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42, p < .001). 총점이 포함된 모형에서 역문화 충격의 직접효과는 β = -.17(p < .05)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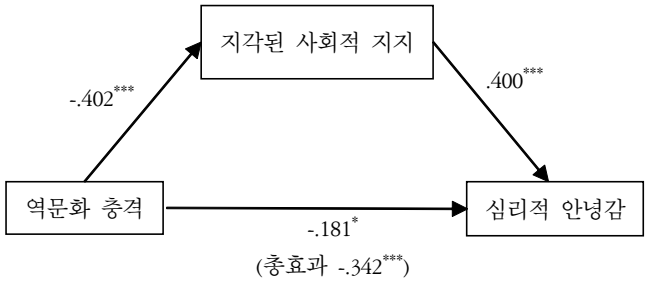
각 매개변수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하나의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표로 통합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해당 표에는 각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추정치와 95% 신뢰구간(BootLLCI, BootULCI)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간접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표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별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변인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가족 지지	-.032	.015	-.067	-.007
친구 지지	-.067	.027	-.124	-.016
의미 있는 타인 지지	-.076	.027	-.137	-.034
지각된 사회적 지지	-.078	.027	-.141	-.035

주. CI: 95% 신뢰구간, LL: 하한값, UL: 상한값.



*p < .05, ***p < .001. 그림 내 계수는 표준화 계수(β)임.

그림 1.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

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총점을 포함한 통합 매개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은 모두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 그리고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상호문화 역량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기준으로 표 6에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만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7, p < .05).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면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2.9% 증가하

표 6.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친구 지지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변인	B	SE	β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친구 지지	.073	.014	.414	5.392***	.046	.100
상호문화 역량	.299	.109	.205	2.744**	.084	.514
친구지지 × 상호문화 역량	-.083	.036	-.173	-2.313*	-.154	-.012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ΔR^2		F		p	
	.029		14.213		.000	

*p<.05, **p<.01, ***p<.001

였으며(ΔR^2 = .03, p < .05), 최종 모형의 총 설명력은 22.8%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수준(-1 SD)에서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β = .59, p < .001), 평균 수준에서도 유의한 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β = .41, p < .001).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수준(+1 SD)에서는 친구 지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나,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1). 이러한 결과는 상호문화 역량이 낮을수록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해당 조절효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가족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β = -.01, p > .05, 95% CI [-.20, .17]), 의미 있는 타인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5, 95% CI [-.24, .03]).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β = -.12, p > .05, 95% CI [-.58, .05]),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직접 경로에서도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2, p > .05, 95% CI [-.17, .14]). 이들 모형에서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는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문화 역량은 해당 관계들에서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호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및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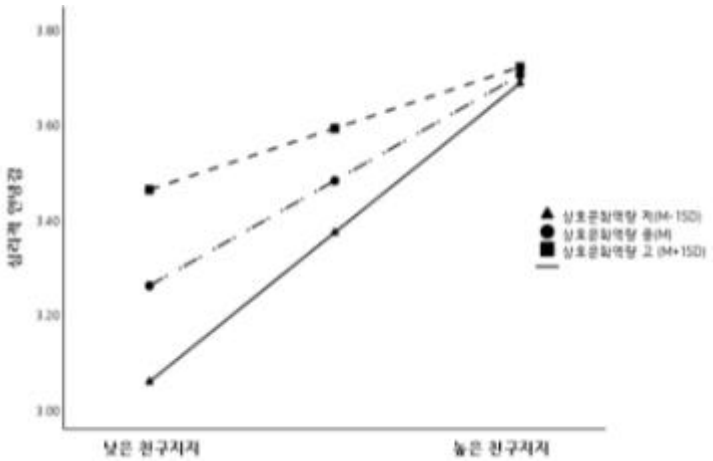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 (상호문화 역량 × 친구 지지)

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과 사회적 지지 총점의 매개효과가 상호문화 역량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5를 사용하였다. 간접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준화 계수(β)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에서만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역문화 충격은 친구 지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β = -.41, p < .001), 친구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33, p < .001). 또한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으며(β = -.23, p < .01), 이는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해당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수준(-1 SD)에서는 친구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β = -.23, 95% CI [-.38, -.09]), 평균 수준에서도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β = -.14, 95% CI [-.23, -.05]).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수준(+1 SD)에서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04, 95% CI [-.13, .05]).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09, 95% CI [.02, .18]), 이는 친구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해당 조절된 매개 구조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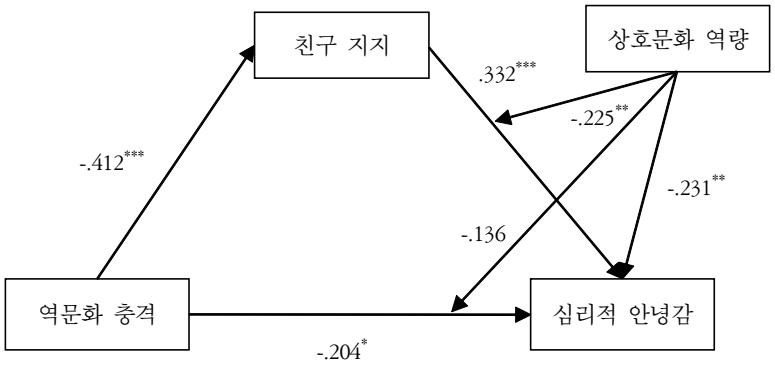
반면, 가족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 지지, 그

표 7.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 친구 지지)

결과변인: 친구 지지						
변인	*B*	*SE*	β	*t*	95% CI	
					LL	UL
역문화 충격	-1.324	.242	-.412	-5.466***	-1.802	-.845
결과변인: 심리적 안녕감						
변인	*B*	*SE*	β	*t*	95% CI	
					LL	UL
역문화 충격	-.115	.046	-.204	-2.504*	-.207	-.024
친구 지지	.058	.015	.332	4.000***	.030	.087
상호문화 역량	.337	.106	.231	3.183**	.128	.546
역문화 충격 × 상호문화 역량	-.209	.134	-.136	-1.558	-.474	.056
친구지지 × 상호문화 역량	-.108	.040	-.225	-2.688**	-.187	-.028

*p<.05, **p<.01, ***p<.001

주. CI: 95% 신뢰구간, LL: 하한값, UL: 상한값.



*p < .05, **p < .01, ***p < .001. 그림 내 계수는 표준화 계수(β)임.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 (매개: 친구 지지)

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에는 모두 0이 포함되어, 상호문화 역량이 해당 간접효과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 Index = .093, 95% CI [-.013, .201]).

종합하면, 상호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 경로에서만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낸 유일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보다 강하게 기여한다는 점은,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 친구 지지가 핵심적인 보호 자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귀국 이후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상호문화 역량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특히 친구 지지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첫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 지지는 모두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귀국 후 경험하는 정서적 혼란과 정체성의 불일치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Sarason et al.,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기존중, 감정 조절, 대인관계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는 귀국 이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객관적 지원의 양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Kanner et al., 1981; 김정애, 1994; 김명숙, 2009).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는 외형적으로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반대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의미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지각된 관계의 질은 정체성 회복, 자기수용, 사회적 연결감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 점은 세 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차원적인 지지를 경험하며, 이러한 관계 자원들이 누적적·통합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다(정재희, 2022; 임채영, 2023).

둘째,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친구 지지를 경로로 한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 지지가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안정성과 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그 효과가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환경 해석력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외부 지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Mosanya, 2022; LaBass, 2015; Priest, 2003). 이러한 결과는 역문화 충격이 친구 지지를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간접 경로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Caselius & Suutari, 2023; Evans & Bardhan, 2023).

반면,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 지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호문화 역량의 하위요인인 갈등관리, 존중, 의사소통, 성찰은 친구 지지를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조절·보완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Arasaratnam, 2016; Farnicka & Pocinho, 2018; Tarique & Weisbord, 2013; Wei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친구 지지가 다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비해 정서적 밀접성과 즉시성이 높고, 귀국 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가장 먼저 재구성해야 하는 핵심 관계망이라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Doherty et al., 2023; 신하은, 2022). 기존 친구 관계의 단절과 문화적 거리감 속에서, 친구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주요한 대상이며,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친구 지지와 달리, 가족 지지는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지지가 귀국자 개인의 맥락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경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귀국 시 가족과의 동반 여부, 가족의 거주지, 성장 과정에서의 분리 경험 등은 가족 지지의 심리적 기능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Kanno, 2000; Yoshida et al., 2002). 그럼에도 가족 지지는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정서적 기반이자 상징적 소속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귀국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성

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Gaw, 2000).

의미 있는 타인 지지 역시 조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 멘토, 종교 지도자와 같은 관계가 정서적 즉시성이나 상호작용 빈도 측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자기효능감이나 가치 체계 형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상호문화 역량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Neto & Neto, 2011).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이 조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총점 지표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하위요인들의 평균값으로 산출되면서 특정 효과를 희석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총점은 관계의 정서적 밀도나 즉시성, 지지의 성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하위요인에서 나타나는 조절 경향이 가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얼마나 제공되었는가보다,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한다(Schaefer et al., 1981).

이러한 결과들은 역문화 충격과 상호문화 역량이 친구 관계라는 맥락에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두 변인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역문화 충격은 익숙했던 모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과 '소속감의 상실'을 핵심으로 한다. 가족 지지는 대개 무조건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여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Gaw, 2000; 김정애, 1994), 친구 지지는 유사한 문화적 코드와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선택적 자원'의 성격이 강하다(Ward et al., 2020). 따라서 문화적 부적응 스트레스인 역문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은 친구 지지 경로에서 더욱 결정적인 조절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상호문화 역량(Arasaratnam, 2016; Hammer et al., 2003)은 수직적이거나 고정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이 요구되는 자원이다. 즉,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역문화 충격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친구 지지를 유연하게 확보하거나 지지의 결핍을 내적 자원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역량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절 기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친구 지지의 유무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sgoret & Ward, 2006; Pitts, 2009). 결과적으로 가족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 지지가 모든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 보편적인 심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자원이라면, 친구 지지는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과 결합하여 적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다 가변적이고 전략적인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단일한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지지망과 개인 내적 역량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심리자원으로 기능하며, 두 자원의 결합 방식이 역문화 충격 이후의 적응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친구 지지의 심리적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은, 개인 내 자원과 외적 지지 자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귀국 이후 정서적 회복력 형성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역문화 충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상호문화 역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유학생이나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s)과 같이 부모를 따라 해외에 이주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나아가, TCK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 CCKs) 중에서도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집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해외 체류 시기의 다양성과 독립적 이동 경험을 포함하는 집단으로, 귀국 이후의 심리적 적응 양상 역시 단일한 경로로 설명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를 보다 정교하고 심화된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역문화 충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심리적 경로로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 지지가 핵심적인 경로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가족 지지나 의미 있는 타인 지지와는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를 가족 중심 또는 의미 있는 타인 중심으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결과로,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실제 적응 과정에서 가장 긴밀하고 즉각적인 지지망이 친구관계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닌 상호문화 역량이 이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함을 밝혔다. 특히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경우, 친구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역문화 충격이라는 복합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개인 내 자원과 외부 지지망이 상호작용하며 심리적 적응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이라는 두 심리사회적 자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6대륙 38개국에 걸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148명의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설문 문항을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연구 결과의 보편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에 있어 실천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귀국 이후 경험하는 심리적 소외와 소속감 상실을 고려할 때, 기존 친구관계의 회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유사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관계와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상호문화 역량 수준에 따라 심리적 적응 경로가 달라짐이 확인된 만큼, 개인의 상호문화 역량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사회적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상호문화 역량이 낮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에게는 정서적 지지망 형성과 소속감 회복을 중심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며, 상호문화 역량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닌 적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리교육적 접근을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심리적 지지망 구축은 단순한 관계 형성을 넘어, 언제든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관계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상담 수준을 넘어 사회적 ·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국가 인적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재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 지지와 상호문화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국자를 대상으로 한 또래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이나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을 국가 차원의 귀국자 지원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 및 외교부 차원에서 귀국 초기 재적응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개입은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이 보유한 다문화적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온전히 발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특히 친구 지지의 경로와 개인 내 자원인 상호문화 역량의 조절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향후 귀국자 대상 심리사회적 개입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상호문화 역량 증진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중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며, 표본 수 또한 148명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표본 특성은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둘째, 자료 수집이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기억 오류 등 주관적 응답 특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역문화 충격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변인의 경우, 응답 시점의 정서 상태나 회상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귀국 직후부터 장기적인 심리적 적응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귀국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등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참여자를 포함하였으나, 대륙별 또는 국가별 특성에 따른 심리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국가 또는 대륙별로 분류할 경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다수의 참여자가 복수 국가에서 체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요 체류 국가를 일관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은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을 포함한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국 직후부터 장기적인 심리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역문화 충격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량적 설문조사에 더해 심층 면담을 포함한 혼합 방법(mixed-method)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망의 질적 특성이나 친구 지지가 실제로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문화권별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귀국한 성인기 교차문화 아이들(ACCKs)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 증진을 위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지원 (2020).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가데이터처 (2024).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명숙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애 (1994). **사회적 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채은, 유금란, 김유찬, 이규민 (2025).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1**(2), 331-359.

김혜정 (2021). 한국 제 3 문화 성인아이들(Korean Adult Third Culture Kids)의 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8**

(1), 163-180.

김혜정, 남초원, 이수경 (2015). 귀국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433-449.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37**, 241-269.

신하은 (2022). *Cultural homeles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ird culture kid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self-concept clarit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안은지 (2020). **재외국민 특례입학생의 한국어 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역문화 충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노미 (2017). 역문화충격의 구조적 요인과 적응과정에서의 비교문화역량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25**(2), 45-77.

이병준, 손현미, 최말옥, 한현우 (2017). 상호문화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2**(1), 39-60.

이수경 (2017). 제3문화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s)의 문화적 소속감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31-154.

이수경 (2021). '제 3 문화 아이들 (Third Culture Kids: TCKs)'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모색: '교차문화 아이들 (Cross-Culture Kids: CCKs)'용어 제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291-313.

이승민, 양은주 (2015).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지지체계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45-66.

임선민, 연규진 (2020). 귀국 대학생들의 문화가치, 문화 지능과 재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743-1768.

임채영 (2023).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예은, 김향미, 김혜정 (2019). 귀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 회복탄력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197-1214.

정재희 (2022).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 :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긍정정서 반응양식의 이중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정은 (2015). **가족건강성과 또래지지가 중학생의 우울 및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홍구표, 전혜성 (2017).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34-67.

Abe, J. A. A. (2018). Personality, well-being, and cognitive-affective styles: A cross-sectional study of adult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5), 811-830.

Arasaratnam, L. A. (2016). Intercultural competence. In M. Powers (Ed.),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228613.013.68

Bennett, J.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pp. 147-165). SAGE Publications.

Bi, S., Stevens, G. W. J. M., Maes, M., Boer, M., Delaruelle, K., Eriksson, C., Brooks, F. M., Tesler, R., van der Schuur, W. A., & Finkenauer, C. (2021).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different sources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cross 42 countries/regions: The moderating role of national-level generalized trus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0*(7), 1384-1409.

Byram, M., Barrett, M., Lázár, I., Mompoint Gaillard, P., & Philippou, S. (2014).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education.*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aselius, J., & Suutari, V. (2023). The global chameleons: the impact of early life international exposure on the career capital of adult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Global Mobility: The Home of Expatriate Management Research, 11*(4), 530-55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Biopsycho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Cottrell, A. B. (2011). Explaining differences: TCKs and other CCKs, American and Japanese TCKs. In N. Sichel, E. N. Orr, & F. Eidse (Eds.), *Writing out of limbo: International childhoods, global nomads and third culture kids* (pp. 57-77).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Deardorff, D. K. (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41-266.

Doherty, L., Lieu, J., Aledeh, M., Edwards, A. M., & Kotera, Y. (2023). Examining the impact of a third culture kid upbringing: wellbeing, attachment and ethnic identity strength in adult third culture kid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22*(2), 164-180.

Evans, S., & Bardhan, N. (2023). Adult third culture kids and sojourn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xploring belonging through a multileve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6,* 101844.

Fanari, A., Liu, R. W., & Foerster, T. (2021). Homesick or sick-of-home? Examining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students' reverse culture shock after studying abroad: A mixed-method study.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50*(3), 273-303.

Farnicka, M., & Pocinho, M. (2018). What can psychology offer in cross-cultural dialogue: A psychological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petence. In J. Ramírez & G. Abad-Quintanal (Eds.), *Cross-cultural dialogue as a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pp. 70-83).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77231-8_7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1), 83-104.

Gullahorn, J. T., & Gullahorn, J. E. (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33-47.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Hofhuis, J., Hanke, K., & Rutten, T. (2019). Social network sites and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sojourners in the Netherland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alienation and online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9*, 120-130.

Huber, J. (2012).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all: Preparation for living in a heterogeneous world* (Vol. 2). Council of Europe.

Huff, J. L. (2001). Parental attachment, reverse culture shock,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of missionary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9*(3), 246-264.

Jacobsson, E. (2023). *Reverse Culture Shock: An insight into returning student sojourners at Malmö University and their experience of reverse culture shock* [Master's thesis, Malmö University].

Jin, R. (2021). *The bittersweet homecoming: A qualitative study of reverse culture shock on returne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epperdine University].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Kanno, Y. (2000). Kikokushijo as bicultur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 361-382.

Kim, S., & Park, J. H. (2023).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anxiety among Korean Returnee Cross-Cultural Individual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re-acculturative stress and self-compass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5*, 107238.

LaBass, C. (2015). *Resilience in relation to consistency in self-concept in adult third culture kids(ATCKs)* [Doctoral dissertation, Antioch University].

Lakey, B., & Cohen, S. (2000). Social support theory and measurement. *In S. Cohen, L. G. Underwood,* & *B. H. Gottlieb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 29-52).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5126709.003.0002

Leung, K., Ang, S., & Tan, M. L. (2014). Intercultural competence.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489-519.

Martin, E. E. (2017). Adult missionary kids reentry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high school. *Journal of Cross-Cultural Family Studies, 1*(1), 2.

Masgoret, A. M., & Ward, C. (2006). Culture learning approach to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58-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sanya, M. (2022). Global Mindset as a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The Mediational Role of Self-

Efficacy. *Education of Economists & Managers, 63*(1), 39-54.

Nam, J. K., Nam, J. S., & Kim, D. (2018). Cultural Homeles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Cross-Cultural Individuals: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Clarity: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Clarity. 교육심리연구, 32(3), 571-596.

Neto, F., & Neto, J. (201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returned Portuguese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Research & Policy, 2*(2), 27-46.

Petersen, K. J., Qualter, P., Humphrey, N., Damsgaard, M. T., & Madsen, K. R. (2023).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Profil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2*(11), 3430-3446.

Pitts, M. J. (2009). Identity and the role of expectations, stress, and talk in short-term student sojourner adjustment: An application of the integrativ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6), 450-462.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9).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Rev. ed.).* Nicholas Brealey Publishing.

Priest, R. J. (2003). Etiology of adult missionary kid (AMK) life-struggles. *Missiology, 31*(2), 171-192.

Proyrungroj, R. (2023). Travelling back home and becoming a stranger. *Journal of Tourism & Development, 44*, 213-233.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Seiter, J. S., & Waddell, D. (1989). *The Intercultural Reentry Process: Reentry Shock, Locus of Control,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Uses of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pokane, WA.

Storti, C. (2001). *The art of coming home*. Nicholas Brealey Publishing.

Sussman, N. M. (2000). The dynamic nature of cultural identity throughout cultural transitions: Why home is not so swee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4), 355-373.

Szkudlarek, B. (2010). Reentry—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1), 1-21.

Tarique, I., & Weisbord, E. (2013). Antecedents of dynamic cross-cultural competence in adult third culture kids (ATCKs). *Journal of Global Mobility, 1*(2), 139-160.

Torres, L., & Rollock, D. (2004). Acculturative distress among Hispanics: The role of acculturation, coping,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3), 155-167.

UNESCO. (2013). *Intercultural competences: Conceptual and operational framework.* UNESCO Publishing.

Van Reken, R., & Bethel, P. (2005). Third culture kids: Prototypes for understanding other cross-cultural kids. *Intercultural Management Quarterly, 6*(4), 3-9.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20). *Psychology culture shock.* Routledge.

Wei, Y., Spencer-Rodgers, J., Anderson, E., & Peng, K. (2021). The effects of a cross-cultural psychology course on perceived intercultural competence. *Teaching of Psychology, 48*(3), 221-227.

Yoshida, T., Matsumoto, D., Akiyama, T., Moriyoshi, N., Furuiye, A., Ishii, C., & Franklin, B. (2002). The Japanese returnee experience: Factors that affect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4), 429-445.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논문 투고일 : 2026. 02. 03
1 차 심사일 : 2026. 03. 18
게재 확정일 : 2026. 06. 06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6, Vol. 32, No. 3, 359～386.

The Effect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Cross-Cultural Kid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Hyo Jung Kim **Won-Ju Park**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defines Adult Cross-Cultural Kids (ACCKs) as adults who lived abroad for at least two years before the age of 18 and subsequently repatriated to Korea,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rse culture shoc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148 ACCKs from 38 countries worldwid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v4.3 (Model 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verse culture shock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all sub-dimensions of social support (family, friend, and significant other) significantly mediating this relationship.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 only for friend support. Third, intercultural competenc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reverse culture shock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perceived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cultural competence serves as a key internal resource for regulating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social support under reverse culture shock,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ts organic interaction with friend suppor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terventions considering both individual competence and relational resources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CCKs.

Key words : Adult Cross-Cultural Kids, reverse culture shock,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cultural competence, psychological well-being